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2017

07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도행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7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7

2017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전교인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3 전교인	4 12교구	5 4교구	6 17교구	7 14교구	8 전교인
9 전교인	10 전교인	11 15교구	12 5교구	13 16교구	14 8교구	15 전교인
16 전교인	17 전교인	18 13교구	19 10교구	20 18교구	21 6교구	22 전교인
23 전교인	24 전교인	25 1교구	26 7교구	27 9교구	28 3교구	29 전교인
30 전교인	31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7월 2일(주일)

제5차 성찬식 / 맥추감사주일

7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목사님의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이 있게 하소서.
- ⑧ 중직자(장로·안수집사·권사)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⑨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⑩ 믿음과 사랑으로 작정한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만사행업 제10화 10행방 10오

창 20:1-17, 22-28, 31-32, 33-34, 35-36, 37-38, 39-40, 41-42, 43-44, 45-46, 47-48, 49-50, 51-52, 53-54, 55-56, 57-58, 59-60, 61-62, 63-64, 65-66, 67-68, 69-70, 71-72, 73-74, 75-76, 77-78, 79-80, 81-82, 83-84, 85-86, 87-88, 89-90, 91-92, 93-94, 95-96, 97-98, 99-100



매일묵상 Q.T.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본문 사도행전 1:1~14 찬송가 505장

>>> 본문 해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40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을 뿐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성령을 간구하라'는 의미임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고난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독히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기에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땅끝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전도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각오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제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언제나 성령충만을 주옵소서.

¹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²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³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⁷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⁹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¹⁰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¹¹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¹²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¹³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¹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120명이 함께 모여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던 중,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때 제자의 무리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 넘기고 자살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열둘 가운데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회중에게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새로 뽑아서 열두 사도의 수를 채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맛디아가 뽑히게 됩니다. 더불어 베드로는 가롯 유다에 대해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사도의 직무를 받았으나,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유다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기에 사도의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불행하게도 돌이킬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그 사건이 미친 파장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수습함으로써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먼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막 3:14~15).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둘을 추천한 뒤에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일꾼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 기도 제목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저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힘있게 감당케 하옵소서.

¹⁶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¹⁷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¹⁸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¹⁹(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²⁰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²¹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렸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

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²²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²³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²⁴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²⁵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²⁶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²⁷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성령이 홀연히,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충만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충만은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현상을 동반했지만,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또한 본문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4절)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충만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성령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하는데, 본문의 기록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11절)을 말함으로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신 이 현장에서부터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오늘도 성령충만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제 뜻을 따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²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⁵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⁶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⁷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⁸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⁹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¹⁰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밋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¹¹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¹²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¹³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는 성도들의 방언을 술 취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지자 요엘의 예언(요엘 2:28~32)을 들어 반박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설명한 이유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요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언을 근거로 들어 설교함으로써 성령강림 사건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죄로 인해 멸망 당할 육체에 임하심으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엘의 예언이 성령강림으로 성취되어서 누구든지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의 날이 임박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일어났던 현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조 눅 23:44~45).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는 그 두려운 심판에서 제외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¹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¹⁵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¹⁶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¹⁷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¹⁸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¹⁹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²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²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22절), 십자가(23절), 부활(24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한 이유는 청중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데 인간의 사악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도 인간의 사악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34절) 나중에 성취될 '생명의 길' (28절)에 관해 마치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33절),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36절)고 전하며 청중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고 무지했고 비겁하기도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 기도 제목

다윗은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뵈옵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²²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²³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²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²⁵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²⁶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²⁷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²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²⁹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

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³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³¹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³²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³³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³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³⁵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³⁶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회개는 죄인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례와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은 회개를 통해 얻는 복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새 언약의 공동체가 출발했습니다. 그 역사는 하루에 3천명(41절) 혹은 5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행4:4),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며(행 5:42),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행 2:47),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고(행 9:31),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행 19:20),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교회 성장이라는 표면적 결과보다 모든 지역을 넘어서 퍼져 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복중의 복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신적인 삶은 사랑의 힘에서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현신적인 삶을 살다보니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현신적인 삶이야말로 영혼구원의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특히 '각 사람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삶은 서로의 영적 교제를 깊어지게 합니다. 봉사과 헌신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사람이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신자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현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열매도 없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또한 제가 속한 교회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³⁷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³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³⁹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⁴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⁴¹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

더라 ⁴²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⁴³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⁴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⁴⁵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⁴⁶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⁴⁷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문 사도행전 3:1~10 찬송가 96장

» 본문 해설

제 구 시(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걸인을 보았습니다. 그 걸인은 다리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는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도들을 보았는데, 습관대로 '무엇을 얻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걸인의 눈에는 사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돈만 구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려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도들도 습관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걸인을 만났고, 늘하던 대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목했던 것입니다. 습관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 된 성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교회 지도자에게 예수님 대신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예수님 대신 세상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한 어조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걸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둠던 삶의 현상이 변하여 찬송의 꽃을 피웠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제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축하하게 하옵소서.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²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³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⁴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⁵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⁶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⁷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⁸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⁹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¹⁰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지금까지는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걸인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봅니다(10절). 치유를 받은 후 기뻐서 성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걸인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달려가 붙잡습니다. 걸인만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걸인의 치유과정이 궁금했던 백성도 모두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누구로부터 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하는 모든 백성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만 주목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인을 고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종', 곧 '소자' 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주를 죽인 것입니다. '고난 받는 종의 노래' (5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많은 죄고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부활의 복된 소식입니다.

>>> 기도 제목

치유는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¹²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¹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¹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¹⁵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¹⁶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¹⁷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¹⁸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¹⁹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²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²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²²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²³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²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²⁵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²⁶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는 제사장의 무리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그들을 가두었다고 밝힙니다(2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고난만 당할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친히 당하셨을 고난을 자신들이 대신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매 맞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행 5:41).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며 기뻐했던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골 1:24). 그리고 이 와중에도 말씀을 듣고 믿은 남자의 수가 오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은 매이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로 시작해서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도전으로 끝나는 베드로의 설교는 오히려 그들을 향한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마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2장의 성령강림 사건에 대한 군중의 혼돈 상황에서, 3장의 앓은뱅이를 고친 후 백성들이 몰려든 현장에서, 그리고 체포되어 심문을 당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일관되게 보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죽음도 겁내지 않는 성령충만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 기도 제목

학교나 직장에서 복음이 도전을 받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대변하기보다는 위축되지만 하던 제 모습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담대함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¹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²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³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다라 ⁵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⁶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⁷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⁸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

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⁹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¹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¹¹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¹²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한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맙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의 관심은 사실 여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있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는데 있었습니다(16절). 다만 산헤드린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백성의 여론 때문이었습니다(17, 21절). 결국 산헤드린은 사도들을 협박한 후에 풀어주자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17~18절). 이러한 산헤드린의 결정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자 했으며, 자신의 힘으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13~14, 16~17절). 그리고 완력으로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18절).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호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20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능력입니다. 이에 따른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은 사도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확산을 막으려던 그들의 결정은 아무런 효과 없이 오히려 비웃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21절).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백성의 여론에 얽매어 자기들의 길을 결정합니다. 사도들의 지혜로움과 공회원들의 어리석음이 대조를 이루며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민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을 인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¹³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¹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¹⁵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¹⁶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¹⁷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¹⁸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¹⁹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²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²¹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²²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다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플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동료에게로 가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의심치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대적하는 자로 지적인 사람들이 바로 27절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들의 음모는 결국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과 지혜 아래에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28절). 그리고 이어진 그들의 기도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구한 것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명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충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고된 일상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 기도 제독

성령충만하여 담대히 주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²⁴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²⁵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²⁶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²⁷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²⁸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

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²⁹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³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³¹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³² 빌기를 다함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는 정직한 현금태도를 보인 바나바와 그와는 대조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쓸 것을 나눔과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모두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사람들을 살피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쓸 것의 나눔이란 바로 이런 자발적인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의 죄는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공동체(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인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에서 떠나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자발적인 위로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²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³³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³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³⁵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³⁶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하니 ³⁷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²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³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

으나 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⁵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⁶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써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⁷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⁸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⁹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¹⁰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¹¹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도들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15~16절).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병자가 나음을 얻는 비결은 옷자락이나 베드로의 그림자(15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병자들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관원들은 이런 상황을 막으려 애를 썼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19절)'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관원들은 성전에서 여전히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25절). 그러나 소요를 두려워하여 강제로 못하고 두려움으로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관원들과 같이 로마황제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입을 막으려하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인간의 두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능력의 도구가 됩시다.

»» 기도 제목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입술과 시대정신에 굴하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¹²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¹³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¹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¹⁵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¹⁶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¹⁷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¹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¹⁹ 주의 사자가 밤에 옥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²⁰ 가서 성전에 서

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²¹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²²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²³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니 ²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²⁵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²⁶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심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29절). 그러자 일부의 공회원들이 소요의 부담을 안고라도 사도들을 처형하길 원했습니다(33절). 그러나 명망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 가말리엘이 신중하게 충고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영향력있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자세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38~39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의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결국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크지만 만일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가말리엘의 말이 끝난 후,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갔습니다. 가말리엘의 냉정한 판단으로 인해 이날은 조용히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찌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우리도 주의 이름을 위한 고통을 기뻐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계속하게 하소서.

²⁷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²⁸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²⁹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³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³¹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³²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³³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새 ³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³⁵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지 조심하라 ³⁶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³⁷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꺾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³⁸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³⁹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⁴⁰ 그들이 율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⁴¹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⁴²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루살렘 교회는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기금으로 매일 가난한 교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연히 가난했던 과부들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일을 맡을 7명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증거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출된 7명의 이름을 보니 이들은 모두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한된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 갔는데 거기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에 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에 비해 많은 개방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김없이 복음을 배척했지만 일반 제사장 중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친처럼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직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장로는 교인을 심방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근본적인 사명에 힘쓰며, 집사는 교회의 살림살이와 구제에 힘을 모으며, 권사는 성경에서 정한 직분은 아니지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귀한 직무로 기도의 일에 전념할 때,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왕성해져 갑니다.

»» 기도 제목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직무를 깊이 이해하고, 또 신실하게 감당하여 복음전파에 큰 진보가 있게 하소서.

¹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²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³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⁴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에 힘쓰리라 하니 ⁵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⁶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⁷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어제의 본문은 스테반 집사가 행했던 빛나는 사역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성전으로 상징되는 옛 체제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체제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테반을 당할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스테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고소내용이 11~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점, 성전을 헐라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성전 파괴의 예언(눅 21:6)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접수한 대제사장은 관례대로 산헤드린 공회장의 자격으로 스테반에게 두 가지의 고소 내용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제공합니다. 이런 폭풍같은 순간에도 성정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스테반은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붙들려 지혜와 성령으로 시대를 깨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진리에 뿌리내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스테반 집사의 시대와 같이 충현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 일어나 스테반 집사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되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언약에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대를 지혜와 성령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되게 하소서.

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⁹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¹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¹¹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¹²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¹³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¹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¹⁵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요청을 받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스데반의 진술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반론, 즉 자신이 고소당할 만한 이유가 없을 변호하기 위한 설명이 해명이 아니라 자기가 본 그대로를 성실하게 증거했던 한 편이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개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과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던 성령을 배척해 왔던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메소보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고(2절),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9절). 스데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예수에게 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혔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7장의 스데반 이야기는 이런 구약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다시금 깨닫고, 어리석게 복음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¹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나 ²스데 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³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⁴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⁵그러나 여기서 밭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⁶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고 ⁷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⁸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

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⁹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¹⁰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¹¹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¹²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¹³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¹⁴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¹⁵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¹⁶세 겹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겹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17절은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에게 행한 적대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해 줄 날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9~13절). 또한 모세의 동족들이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시기 위해 보내신 자임을 알아보지 못한 데서 나타났습니다(25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를 폭로하였습니다(27~28절). 백성들에게 배척받은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였습니다(29절).

스데반은 모세의 도피사건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3장)로 이 사실이 이미 증거되었고, 5천명이 죄에서 돌이킨 사실을 보면 서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자의 배척받음이 40절까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순간이 임박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굳건히 머물러 예수를 시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¹⁹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²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고통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²¹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²²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²³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²⁴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²⁵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²⁶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²⁷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²⁸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²⁹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³⁰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원 역사를 어떻게 거절했는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러납니다(27~28, 35, 39~40절). 모세도 요셉처럼 처음 동족 앞에 섰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25절). 모세는 시내 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30절).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자기의 백성을 만나실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출애굽의 온갖 표적들)과 보호 아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38절). 모세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예언한 더 위대한 선지자의 징조였습니다(37절).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스테반이 공회 앞에 서기 불과 몇 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스테반은 구약의 역사에서 반복되게 빠져들었던 우상숭배의 역사는 바로 광야의 불순종에 기원한 것이었음을 아모스 5:25~27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교훈합니다(42~43절).

계속해서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역사를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앞에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기도 제목

뿌리 깊은 불순종의 역사를 깨달아,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붙잡게 하소서.

³⁰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³¹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³²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³³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³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³⁵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³⁶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³⁷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

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³⁸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³⁹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⁴⁰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⁴¹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⁴²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⁴³ 물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던 것입니다(44절). 늘 이동해야 했던 이들에게 적합했던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땅에 정착한 후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47절) 여러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장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의 땅에 있다는 사실을 마치 자기들이 임의로 하나님을 영구히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할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유혹들에 대해 이미 경고했습니다(렘 7:4). 스테반은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한정되실 수 없음을 이사야 66장 1~2절을 인용하며 말하였습니다(49~50절). 스테반도 그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롯에 의해 건축(증축)된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다시 선언한 것입니다(행 6:14).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이와 같은 비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동일한 적대 행위를 촉발하여 지금 공회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교회를 참된 ‘성전’, 즉 말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곳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의 장막”에 안주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영안을 주소서.

⁴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⁴⁵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⁴⁶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아람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⁴⁷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⁴⁸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⁴⁹ 주께서 이

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⁵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⁵¹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⁵²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⁵³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찢림이 있었지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였습니다(54절). 이러한 악한 반응에도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55~56절). 이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57~58절). 스테반은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였으며,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59~60절). 스테반은 순교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행 8:1).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으며(행 8:1), 앞장서서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행 8:3).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여도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까지 전파되도록 더욱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 기도 제목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⁵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⁵⁵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⁵⁶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⁵⁷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⁵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⁵⁹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⁶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¹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²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³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4절). 그 중에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5절).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6~7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8절). 하지만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과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스스로 '큰 자' 라고 말하였습니다(9절).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시몬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10절).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빌립이 전하여 준 '하나님 나라'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11절), 마술사 시몬은 명확히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13절).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복음 자체보다 '표적' 과 '큰 능력' 의 현상을 보고 놀랐습니다(13절).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랜 시간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에 억눌려 있던 자들도 복음을 통하여 참된 회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합시다.

»» 기도 제목

연약함을 회복케 하고 악한 영을 파하시는 복음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⁴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
씀을 전할새 ⁵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⁶무리가 빌립
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
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⁷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⁸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⁹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¹⁰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
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¹¹오랫동안 그 마술
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¹²빌립이 하
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
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
를 받으니 ¹³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
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습니다(14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15~17절).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복음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히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행 2:1~4). 한편 마술사 시몬은 두 사도가 안수함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성령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달라며 두 사도에게 돈을 드렸습니다(18~19절).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지 않고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준엄히 경고하였습니다(20~22절).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24절).

유대와 사마리아는 민족적 갈등으로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왔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돈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¹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¹⁵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¹⁶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¹⁷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¹⁸ 사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¹⁹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²⁰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²¹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²²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²³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²⁴ 사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²⁵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예루살렘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가사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26절). 빌립이 순종하여 가 보니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27절). 수레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30절).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7~8절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유한 내용이었습니다(32~33절).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3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내시는 물 있는 곳에서 내려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36~38절).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는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39절).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예비된 영혼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 기도 제목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²⁶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²⁷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²⁸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²⁹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³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³¹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³²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³³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³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나 자기를 가리킴이나 타인을 가리킴이나 ³⁵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³⁶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³⁷ (없음) ³⁸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³⁹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⁴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자였습니다(1절). 사울은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꾀방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확신 속에서 다메섹으로 이동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2절). 사울은 다메섹에 도달할 때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찾아오셨고(4절),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추어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었으며(3절), 무리 가운데서 사울에게만 만나주셨습니다(7절). 그리고 사울이 계획하였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계획한 목적을 계시해 주셨습니다(6절).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유다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한 채 기도하였습니다(8~9, 11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¹ 사울이 주의 제지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²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³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⁵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⁶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⁷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⁸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떼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⁹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회복시켜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10~12절). 예수님은 바울에게 미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을 인수하여 낮게 해주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12절).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의 성도에게 큰 해를 끼쳤으며,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왔음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13~14절).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가 인수하였고,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17절). 그러자 즉시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18절). 회심한 사울은 곧바로 다메섹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청중들은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되었습니다(20~22절).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은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 기도 제목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¹⁰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¹¹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¹²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¹³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¹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¹⁵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¹⁶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¹⁷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¹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¹⁹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²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²¹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여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²²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여러 날이 지나매’ (23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갈 1:18).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오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23~24절).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25절).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과거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26절).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바나바가(행 15:25~26) 사울의 회심을 증언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27~28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거에 스테반을 죽였듯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29절). 이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30절). 스테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박해는 오히려 성도들을 흠어지게 함으로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주었습니다(31절).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²³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²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²⁵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²⁶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²⁷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²⁸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²⁹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³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³¹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다니며 성도들을 방문하였습니다(32절).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특별히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베드로의 선포는,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33~34절). 베드로가 아직 룻다에 있을 때 근처 옴바라는 지역에서 성도 두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급히 초청하였습니다(38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고, 과부에게 속옷과 겹옷을 지어 주며 사랑을 베풀던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죽은 것입니다(39절). 베드로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시체를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40절). 베드로의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린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왔고(35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42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베드로는 작은 일까지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³²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³³ 거
 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
 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³⁴ 베
 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
 라 한대 곧 일어나니 ³⁵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³⁶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³⁷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³⁸ 룻다가 욥바
 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
 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³⁹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
 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
 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 ⁴⁰ 베드로가 사람
 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
 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
 는지라 ⁴¹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
 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
 을 보이니 ⁴²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
 이 주를 믿더라 ⁴³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
 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1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2절). 고넬료가 기도하던 오후 3시(제구 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3절).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명령하였고, 고넬료는 즉시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4~8절). 정오에(제육 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9절). 무두장은 짐승을 죽여 가족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10~12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결코 먹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13~14절). 하나님은 자신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15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주십니다. 구원의 복음은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오직 은혜로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²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³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⁵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⁶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⁷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⁸ 이 일을 다 이르고 옥바로 보내니라 ⁹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¹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¹¹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¹²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¹³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¹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걸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¹⁵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¹⁶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던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17~18절).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라'는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자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19~23절). 이튿날 베드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23절).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베드로가 오자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24~25절).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28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었고, 고넬료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29~33절). 고넬료와 가족들은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33절).

고넬료는 높은 계급의 백부장이었지만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맞이합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에게 신적 경의를 표하는 고넬료에게 동등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주님의 환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방인의 가정에 최초로 구원을 베풀고 재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¹⁷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¹⁸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¹⁹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²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²¹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²²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²³ 베드로가 불러 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옹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²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²⁵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

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²⁶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하고 ²⁷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²⁸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²⁹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³⁰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³¹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³² 사람을 옹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³³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닌,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하여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3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선포했습니다(43절). 이처럼 베드로 자신도 이전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으로 인식했으나,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열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가 행해지자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44절). 아직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46절). 이 현상이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사역과도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행 2:1~4).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47절)라고 선언함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확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 역시 전에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 하루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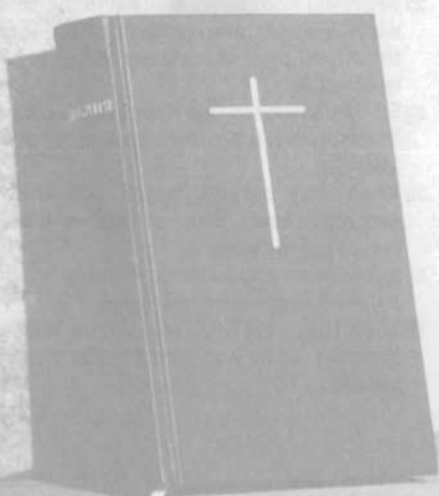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³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³⁵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³⁶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³⁷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³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³⁹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⁴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⁴¹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⁴²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⁴³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⁴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⁴⁵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⁴⁶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⁴⁷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배움을 금하리요 하고 ⁴⁸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7월 1일 토요일

Acts 1:1~14

- 1 In my former book, Theophilus, I wrote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 2 until the day he was taken up to heaven, after giving instruction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he had chosen.
- 3 After his suffering, he showed himself to these men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was alive.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forty days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 4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 5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 6 So when they met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 9 After he said this, he was taken up before their very eyes, and a cloud hid him from their sight.
- 10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as he was going, when suddenly two men dressed in white stood beside them.
- 11 "Men of Galilee," they said,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 12 Then they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a Sabbath day's walk from the city.
- 13 When they arrived, they went upstairs to the room where they were staying. Those present were Peter, John, James and Andrew; Philip and Thomas, Bartholomew and Matthew; James son of Alphaeus and Simon the Zealot, and Judas son of James.

- 14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7월 2일 주일

Acts 1:15~26

- 15 In those days Peter stood up among the believers (a group numbering about a hundred and twenty)
- 16 and said, "Brothers,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which the Holy Spirit spoke long ago through the mouth of David concerning Judas, who served as guide for those who arrested Jesus--
- 17 he was one of our number and shared in this ministry."
- 18 (With the reward he got for his wickedness, Judas bought a field; there he fell headlong, his body burst open and all his intestines spilled out.
- 19 Everyone in Jerusalem heard about this, so they called that field in their language Akeldama, that is, Field of Blood.)
- 20 "For," said Peter,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Psalms, " 'May his place be deserted; let there be no one to dwell in it,' and, " 'May another take his place of leadership.'
- 2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oose one of the men who have been with us the whole time the Lord Jesus went in and out among us,
- 22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to the time when Jesus was taken up from us. For one of these must become a witness with us of his resurrection."
- 23 So they proposed two men: Joseph called Barsabbas (also known as Justus) and Matthias.
- 24 Then they prayed, "Lord, you know everyone's heart. Show us which of these two you have chosen
- 25 to take over this apostolic ministry, which Judas left to go where he belongs."
- 26 Then they cast lots, and the lot fell to Matthias; so he was added to the eleven apostles.

7월 3일 월요일

Acts 2:1~13

- 1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 2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 3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 4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 5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 6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m speaking in his own language.
- 7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 8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his own native language?
- 9 Parthians, Medes and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 10 Phrygia and Pamphylia, Egypt and the parts of Libya near Cyrene; visitors from Rome
- 11 (both Jews and converts to Judaism; Cretans and Arabs--we hear them declaring the wonders of God in our own tongues!"
- 12 Amazed and perplexed, they asked one another, "What does this mean?"
- 13 Some, however, made fun of them and said, "They have had too much wine."

7월 4일 화요일

Acts 2:14~21

- 14 Then Peter stood up with the Eleven, raised his voice and addressed the crowd: "Fellow Jews and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me explain this to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 15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t's only nine in the morning!
- 16 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 17 "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 18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will prophesy.
- 19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 above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 20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and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 21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7월 5일 수요일

Acts 2:22~36

- 22 "Men of Israel, listen to this: Jesus of Nazareth was a man accredited by God to you by miracles, wonders and signs, which God did among you through him, as you yourselves know.
- 23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 24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 25 David said about him: "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 26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live in hope,
- 27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 28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 29 "Brothers, I can tell you confidently that the patriarch David died and was buried, and his tomb is here to this day.
- 30 But he was a prophet and knew that God had promised him on oath that he would place one of his descendants on his throne.
- 31 Seeing what was ahead, he spoke of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 that he was not abandoned to the grave, nor did his body see decay.
- 32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 33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 34 For David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yet he sai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 35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 36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7월 6일 목요일

Acts 2:37~47

- 37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 38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 39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 40 With many other words he warned them; and he pleaded with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 41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 42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 43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nd many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were done by the apostles.
- 44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 45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 46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 47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7월 7일 금요일

Acts 3:1~10

- 1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time of prayer--at three in the afternoon.
- 2 Now a man crippled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where he was put every day to beg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ourts.
- 3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enter, he asked them for money.
- 4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Then Peter said, "Look at us!"
- 5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 6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 7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he helped him up,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 8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he temple court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 9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 10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7월 8일 토요일

Acts 3:11~26

- 11 While the beggar held on to Peter and John, all the people were astonished and came running to them in the place called Solomon's Colonnade.
- 12 When Peter saw this, he said to them: "Men of Israel, why does this surprise you? Why do you stare at us as if by our own power or godliness we had made this man walk?"
- 13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God of our fathers, has glorified his servant Jesus. You handed him over to be killed, and you disowned him before Pilate, though he had decided to let him go.
- 14 You disowned the Holy and Righteous One and asked that a murderer be released to you.

- 15 You killed the author of life,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We are witnesses of this.
- 16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this man whom you see and know was made strong. It is Jesus' name and the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that has given this complete healing to him, as you can all see.
- 17 "Now, brothers, I know that you acted in ignorance, as did your leaders.
- 18 But this is how God fulfilled what he had foretold through all the prophets, saying that his Christ would suffer.
- 19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 20 and that he may send the Christ, who has been appointed for you--even Jesus.
- 21 He must remain in heaven until the time comes for God to restore everything, as he promised long ago through his holy prophets.
- 22 For Moses said,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r own people; you must listen to everything he tells you.
- 23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 24 "Indeed, all the prophets from Samuel on, as many as have spoken, have foretold these days.
- 25 And you are heirs of the prophets and of the covenant God made with your fathers. He said to Abraham, 'Through your offspring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 26 When God raised up his servant, he sent him first to you to bless you by turning each of you from your wicked ways."

7월 9일 주일

Acts 4:1~12

- 1 The priests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came up to Peter and John while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 2 They were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 3 They seized Peter and John, and because it

was evening, they put them in jail until the next day.

- 4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and the number of men grew to about five thousand.
- 5 The next day the rulers, elders and teachers of the law met in Jerusalem.
- 6 Annas the high priest was there, and so were Caiaphas, John, Alexander and the other men of the high priest's family.
- 7 They had Peter and John brought before them and began to question them: "By what power or what name did you do this?"
- 8 Then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aid to them: "Rulers and elders of the people!
- 9 If we are being called to account today for an act of kindness shown to a cripple and are asked how he was healed,
- 10 then know this, you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m you crucified but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 that this man stands before you healed.
- 11 He is " 'the stone you builders rejected, which has become the capstone.'
- 12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7월 10일 월요일

Acts 4:13~22

- 13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took note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 14 But since they could see the man who had been healed standing there with them,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say.
- 15 So they ordered them to withdraw from the Sanhedrin and then conferred together.
- 16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se men?" they asked. "Everybody living in Jerusalem knows they have done an outstanding miracle, and we cannot deny it.
- 17 But to stop this thing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we must warn these men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name."
- 18 Then they called them in again and commanded them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 19 But Peter and John replied,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20 For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21 After further threats they let them go. They could not decide how to punish them, because all the people were praising God for what had happened.
22 For the man who was miraculously healed was over forty years old.

7월 11일 화요일

Acts 4:23~31

- 23 On their release,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ad said to them.
24 When they heard this,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Sovereign Lord,"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25 You spoke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your servant, our father David: "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26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27 Indeed Herod and Pontius Pilate met together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in this city to conspire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28 They did what your power and will had decided beforehand should happen.
29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s an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30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31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7월 12일 수요일

Acts 4:32~37

- 32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as his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33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much grace was upon them all.
34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For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s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35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nd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as he had need.
36 Joseph, a Levite from Cyprus, whom the apostles called Barnabas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37 sold a field he owned and brought the money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cts 5:1~11

- 1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Sapph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2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he kept back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but brought the rest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3 Then Peter said,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tha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you received for the land?
4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And after it was sold, wasn't the money at your disposal? What made you think of doing such a thing? You have not lied to men but to God."
5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And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6 Then the young men came forward, wrapped up his body,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7 About three hours later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8 Peter asked her, "Tell me, is this the price you and Ananias got for the land?" "Yes," she said, "that is the price."
9 Peter said to her, "How could you agre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Look! The feet of

the men who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also."

- 10 At that moment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died. Then the young men came in and, finding her dead,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 11 Great fear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ese events.

7월 13일 목요일

Acts 5:12~26

- 12 The apostles performed many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among the people. And all the believers used to meet together in Solomon's Colonnade.
- 13 No one else dared join them, even though they were highly regarded by the people.
- 14 Nevertheless, more and more men and women believed in the Lord 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 15 As a result, people brought the sick into the streets and laid them on beds and mats so that at least Peter's shadow might fall on some of them as he passed by.
- 16 Crowds gathered also from the towns around Jerusalem, bringing their sick and those tormented by evil spirits, and all of them were healed.
- 17 Then the high priest and all his associates, who were members of the party of the Sadducees, were filled with jealousy.
- 18 They arrested the apostles and put them in the public jail.
- 19 But during the night an angel of the Lord opened the doors of the jail and brought them out.
- 20 "Go, stand in the temple courts," he said, "and tell the people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 21 At daybreak they entered the temple courts, as they had been told, and began to teach the people. When the high priest and his associates arrived, they called together the Sanhedrin--the full assembly of the elders of Israel--and sent to the jail for the apostles.
- 22 But on arriving at the jail, the officers did not find them there. So they went back and reported,
- 23 "We found the jail securely locked, with the guards standing at the doors; but when we

opened them, we found no one inside."

- 24 On hearing this report,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chief priests were puzzled, wondering what would come of this.
- 25 Then someone came and said, "Look! The men you put in jail are standing in the temple courts teaching the people."
- 26 At that, the captain went with his officers and brought the apostles. They did not use force, because they feared that the people would stone them.

7월 14일 금요일

Acts 5:27~42

- 27 Having brought the apostles, they made them appear before the Sanhedrin to be questioned by the high priest.
- 28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he said. "Yet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and are determined to make us guilty of this man's blood."
- 29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replied: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 30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Jesus from the dead--whom you had killed by hanging him on a tree.
- 31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give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to Israel.
- 32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 33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wanted to put them to death.
- 34 But a Pharisee named Gamaliel, a teacher of the law, who was honored by all the people, stood up in the Sanhedrin and ordered that the men be put outside for a little while.
- 35 Then he addressed them: "Men of Israel, consider carefully what you intend to do to these men.
- 36 Some time ago Theudas appeared, claiming to be somebody, and about four hundred men rallied to him. He was killed, all his followers were dispersed, and it all came to nothing.
- 37 After him, Judas the Galilean appeared in the days of the census and led a band of people in revolt. He too was killed, and all his

followers were scattered.

- 38 Therefore, in the present case I advise you: Leave these men alone! Let them go! For if their purpose or activity is of human origin, it will fail.
- 39 But if it is from God, you will not be able to stop these men; you will only find yourselves fighting against God."
- 40 His speech persuaded them. They called the apostles in and had them flogged. Then they ordered them not to speak in the name of Jesus, and let them go.
- 41 The apostles left the Sanhedrin, rejoicing because they had been counted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for the Name.
- 42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7월 15일 토요일

Acts 6:1~7

- 1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as increasing, the Grecian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aic J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 2 So the Twelve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s.
- 3 Brothers, choose seven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 4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 5 This proposal pleased the whole group.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lso Philip, Procor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olas from Antioch, a convert to Judaism.
- 6 They presented these men to the apostles, who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 7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7월 16일 주일

Acts 6:8~15

- 8 Now Stephen, a man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did great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among the people.
- 9 Opposition arose, however, from members of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as it was called)--Jews of Cyrene and Alexandria as well as the provinces of Cilicia and Asia. These men began to argue with Stephen,
- 10 but they could not stand up against his wisdom or the Spirit by whom he spoke.
- 11 Then they secretly persuaded some men to say, "We have heard Stephen speak words of blasphemy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 12 So they stirred up the people and the el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seized Stephen and brought him before the Sanhedrin.
- 13 They produced false witnesses, who testified, "This fellow never stops speaking against this holy place and against the law.
- 14 For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change the customs Moses handed down to us."
- 15 All who were sitting in the Sanhedrin looked intently at Stephen, and they saw that his face was like the face of an angel.

7월 17일 월요일

Acts 7:1~16

- 1 The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these charges true?"
- 2 To this he replied: "Brothers and fathers, listen to me! The God of glory appeared to our father Abraham while he was still in Mesopotamia, before he lived in Haran.
- 3 'Leave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God sai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 4 "So he left the land of the Chaldeans and settled in Haran.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God sent him to this land where you are now living.
- 5 He gave him no inheritance here, not even a foot of ground. But God promised him that he and his descendants after him would possess the land, even though at that time Abraham had no child.
- 6 God spoke to him in this way: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country

not their own, and they will be enslaved and mistreated four hundred years.

- 7 But I will punish the nation they serve as slaves,' God said, 'and afterward they will come out of that country and worship me in this place.'
- 8 Then he gave Abraham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And Abraham became the father of Isaac and circumcised him eight days after his birth. Later Isaac became the father of Jacob, and Jacob became the father of the twelve patriarchs.
- 9 "Because the patriarchs were jealous of Joseph, they sold him as a slave into Egypt. But God was with him
- 10 and rescued him from all his troubles. He gave Joseph wisdom and enabled him to gain the goodwill of Pharaoh king of Egypt; so he made him ruler over Egypt and all his palace.
- 11 "Then a famine struck all Egypt and Canaan, bringing great suffering, and our fathers could not find food.
- 12 When Jacob heard that there was grain in Egypt, he sent our fathers on their first visit.
- 13 On their second visit, Joseph told his brothers who he was, and Pharaoh learned about Joseph's family.
- 14 After this, Joseph sent for his father Jacob and his whole family, seventy-five in all.
- 15 Then Jacob went down to Egypt, where he and our fathers died.
- 16 Their bodies were brought back to Shechem and placed in the tomb that Abraham had bought from the sons of Hamor at Shechem for a certain sum of money.

7월 18일 화요일

Acts 7:17~29

- 17 "As the time drew near for God to fulfill his promise to Abraham, the number of our people in Egypt greatly increased.
- 18 Then another king, who knew nothing about Joseph, became ruler of Egypt.
- 19 He dealt treacherously with our people and oppressed our forefathers by forcing them to throw out their newborn babies so that they would die.
- 20 "At that time Moses was born, and he was no ordinary child. For three months he was

cared for in his father's house.

- 21 When he was placed outside, Pharaoh's daughter took him and brought him up as her own son.
- 22 Moses was educated in all the wisdom of the Egyptians and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 23 "When Moses was forty years old, he decided to visit his fellow Israelites.
- 24 He saw one of them being mistreated by an Egyptian, so he went to his defense and avenged him by killing the Egyptian.
- 25 Moses thought that his own people would realize that God was using him to rescue them, but they did not.
- 26 The next day Moses came upon two Israelites who were fighting. He tried to reconcile them by saying, 'Men, you are brothers; why do you want to hurt each other?'
- 27 "But the man who was mistreating the other pushed Moses aside and said, 'Who made you ruler and judge over us?'
- 28 Do you want to kill me as you killed the Egyptian yesterday?'
- 29 When Moses heard this, he fled to Midian, where he settled as a foreigner and had two sons.

7월 19일 수요일

Acts 7:30~43

- 30 "After forty years had passed, an angel appeared to Moses in the flames of a burning bush in the desert near Mount Sinai.
- 31 When he saw this, he was amazed at the sight. As he went over to look more closely, he heard the Lord's voice:
- 32 'I am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Moses trembled with fear and did not dare to look.
- 33 "Then the Lord said to him, 'Take off your sandals;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 34 I have indeed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I have heard their groaning and have come down to set them free. Now come, I will send you back to Egypt.'
- 35 "This is the same Moses whom they had rejected with the words, 'Who made you ruler and judge?' He was sent to be their ruler and deliverer by God himself, through

- the angel who appeared to him in the bush.
- 36 He led them out of Egypt and did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in Egypt, at the Red Sea and for forty years in the desert.
- 37 "This is that Moses who told the Israelites, 'God will send you a prophet like me from your own people.'
- 38 He was in the assembly in the desert, with the angel who spoke to him on Mount Sinai, and with our fathers; and he received living words to pass on to us.
- 39 "But our fathers refused to obey him. Instead, they rejected him and in their hearts turned back to Egypt.
- 40 They told Aaron, 'Make us gods who will go before us. As for this fellow Moses who led us out of Egypt--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him!'
- 41 That was the time they made an idol in the form of a calf. They brought sacrifices to it and held a celebration in honor of what their hands had made.
- 42 But God turned away and gave them over to the worship of the heavenly bodies. This agrees with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prophets: " 'Did you bring me sacrifices and offerings forty years in the desert, O house of Israel?
- 43 You have lifted up the shrine of Molech and the star of your god Rephan, the idols you made to worship. Therefore I will send you into exile' beyond Babylon.

7월 20일 목요일

Acts 7:44~53

- 44 "Our forefathers had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with them in the desert. It had been made as God directed Moses, according to the pattern he had seen.
- 45 Having received the tabernacle, our fathers under Joshua brought it with them when they took the land from the nations God drove out before them. It remained in the land until the time of David,
- 46 who enjoyed God's favor and asked that he might provide a dwelling place for the God of Jacob.
- 47 But it was Solomon who built the house for him.
- 48 "However, the Most High does not live in houses made by men. As the prophet says:

- 49 " 'Heaven is my throne, and the earth is my footstool. What kind of house will you build for me? says the Lord. Or where will my resting place be?
- 50 Has not my hand made all these things?"
- 51 "You stiff-necked people, with uncircumcised hearts and ears!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s: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 52 Was there ever a prophet your fathers did not persecute? They even killed those who predicted the coming of the Righteous One. And now you have betrayed and murdered him--
- 53 you who have received the law that was put into effect through angels but have not obeyed it."

7월 21일 금요일

Acts 7:54~60

- 54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gnashed their teeth at him.
- 55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 56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 57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they all rushed at him,
- 58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began to stone him. Meanwhile, the witnesses laid their clothe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 59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 60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Acts 8:1~3

- 1 And Saul was there, giving approval to his death.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at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 2 Godly men buried Stephen and mourned deeply for him.
- 3 But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Going from house to house, he dragged off men and women and put them in prison.

7월 22일 토요일

Acts 8:4~13

- 4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 5 Philip went down to a city in Samaria and proclaimed the Christ there.
- 6 When the crowds heard Philip and saw the miraculous signs he did, they all paid close attention to what he said.
- 7 With shrieks, evil spirits came out of many, and many paralytics and cripples were healed.
- 8 So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 9 Now for some time a man named Simon had practiced sorcery in the city and amazed all the people of Samaria. He boasted that he was someone great,
- 10 and all the people, both high and low, gave him their attention and exclaimed, "This man is the divine power known as the Great Power."
- 11 They followed him because he had amazed them for a long time with his magic.
- 12 But when they believed Philip as he preach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baptized, both men and women.
- 13 Simon himself believed and was baptized. And he followed Philip everywhere, astonished by the great signs and miracles he saw.

7월 23일 주일

Acts 8:14~25

- 14 When the apostles in Jerusalem heard that Samaria had accepted the word of God, they sent Peter and John to them.
- 15 When they arrived, they prayed for them that they might receive the Holy Spirit,
- 16 because the Holy Spirit had not yet come upon any of them; they had simply been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 17 Then Peter and John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 18 When Simon saw that the Spirit was given at the laying on of the apostles' hands, he offered them money
- 19 and said, "Give me also this ability so that everyone on whom I lay my hands may receive the Holy Spirit."
- 20 Peter answered: "May your money perish

with you, because you thought you could buy the gift of God with money!

- 21 You have no part or share in this ministry, because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 22 Repent of this wickedness and pray to the Lord. Perhaps he will forgive you for having such a thought in your heart.
- 23 For I see that you are full of bitterness and captive to sin."
- 24 Then Simon answered, "Pray to the Lord for me so that nothing you have said may happen to me."
- 25 When they had testified and proclaimed the word of the Lord, Peter and John returned to Jerusalem, preaching the gospel in many Samaritan villages.

7월 24일 월요일

Acts 8:26~40

- 26 Now an angel of the Lord said to Philip, "Go south to the road--the desert road--that goes down from Jerusalem to Gaza."
- 27 So he started out, and on his way he met an Ethiopian eunuch, an important official in charge of all the treasury of Candace, queen of the Ethiopians. This man had gone to Jerusalem to worship,
- 28 and on his way home was sitting in his chariot reading the book of Isaiah the prophet.
- 29 The Spirit told Philip, "Go to that chariot and stay near it."
- 30 Then Philip ran up to the chariot and heard the man reading Isaiah the prophet.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Philip asked.
- 31 "How can I," he said,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 So he invited Philip to come up and sit with him.
- 32 The eunuch was reading this passage of Scripture: "He was led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as a lamb before the shearer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 33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Who can speak of his dependants?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
- 34 The eunuch asked Philip, "Tell me, please, who is the prophet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one else?"
- 35 Then Philip began with that very passage of Scripture and told him the good news about

Jesus.

- 36 As they traveled along the road, they came to some water and the eunuch said, "Look, here is water. Why shouldn't I be baptized?"
- 37
- 38 And he gave orders to stop the chariot. Then both Philip and the eunuch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him.
- 39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and the eunuch did not see him again, but went on his way rejoicing.
- 40 Philip, however, appeared at Azotus and traveled about, preaching the gospel in all the towns until he reached Caesarea.

7월 25일 화요일

Acts 9:1~9

- 1 Meanwhile,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He went to the high priest
- 2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in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there who belonged to the Way, whether men or women, he might take them as prisoners to Jerusalem.
- 3 As he neared Damascus on his journey,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 4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him,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 5 "Who are you, Lord?" Saul ask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he replied.
- 6 "Now get up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 7 The men traveling with Saul stood there speechless; they heard the sound but did not see anyone.
- 8 Saul got up from the ground, but when he opened his eyes he could see nothing. So they led him by the hand into Damascus.
- 9 For three days he was blind, and did not eat or drink anything.

7월 26일 수요일

Acts 9:10~22

- 10 In Damascus there was a disciple named Ananias. The Lord called to him in a vision, "Ananias!" "Yes, Lord," he answered.
- 11 The Lord told him, "Go to the house of Judas on Straight Street and ask for a man from Tarsus named Saul, for he is praying.
- 12 In a vision he has seen a man named Ananias come and place his hands on him to restore his sight."
- 13 "Lord," Ananias answered, "I have heard many reports about this man and all the harm he has done to your saints in Jerusalem.
- 14 And he has come here with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to arrest all who call on your name."
- 15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 16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 17 Then Ananias went to the house and entered it. Placing his hands on Saul, he said, "Brother Saul, the Lord--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road as you were coming here--has sent me so that you may see again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 18 Immediately,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Saul's eyes, and he could see again. He got up and was baptized,
- 19 and after taking some food, he regained his strength. Saul spent several days with the disciples in Damascus.
- 20 At once he began to preach in the synagogu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 21 All those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and asked, "Isn't he the man who raised havoc in Jerusalem among those who call on this name? And hasn't he come here to take them as prisoners to the chief priests?"
- 22 Yet Saul grew more and more powerful and baffled the Jews living in Damascus by proving that Jesus is the Christ.

7월 27일 목요일

Acts 9:23~31

- 23 After many days had gone by, the Jews conspired to kill him,
24 but Saul learned of their plan. Day and night they kept close watch on the city gates in order to kill him.
25 But his followers took him by night and lowered him in a basket through an opening in the wall.
26 When he came to Jerusalem, he tried to join the disciples, but they were all afraid of him, not believing that he really was a disciple.
27 But Barnabas took him and brought him to the apostles. He told them how Saul on his journey had seen the Lord and that the Lord had spoken to him, and how in Damascus he had preached fearlessly in the name of Jesus.
28 So Saul stayed with them and moved about freely in Jerusalem, speaking boldly in the name of the Lord.
29 He talked and debated with the Grecian Jews, but they tried to kill him.
30 When the brothers learned of this, they took him down to Caesarea and sent him off to Tarsus.
31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a time of peace. It was strengthened; an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it grew in numbers,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7월 28일 금요일

Acts 9:32~43

- 32 As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he went to visit the saints in Lydda.
33 There he found a man named Aeneas, a paralytic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34 "Aeneas," Peter said to him,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take care of your mat." Immediately Aeneas got up.
35 All those who lived in Lydda and Sharon saw him and turned to the Lord.
36 In Joppa there was a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when translated, is Dorcas),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37 About that time she became sick and died,

and her body was washed and placed in an upstairs room.

- 38 Lydda was near Joppa; so when the disciples heard that Peter was in Lydda, they sent two men to him and urged him, "Please come at once!"
39 Peter went with them, and when he arrived he was taken upstairs to the room. All the widows stood around him, crying and showing him the robes and other clothing that Dorcas had made while she was still with them.
40 Peter sent them all out of the room; then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Turning toward the dead woman, he said, "Tabitha, get up." She opened her eyes, and seeing Peter she sat up.
41 He took her by the hand and helped her to her feet. Then he called the believers and the widows and presented her to them alive.
42 This became known all over Joppa, and many people believed in the Lord.
43 Peter stayed in Joppa for some time with a tanner named Simon.

7월 29일 토요일

Acts 10:1~16

- 1 At Caesarea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in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Regiment.
2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3 One day at about three in the afternoon he had a vision. He distinctly saw an angel of God, who came to him and said, "Cornelius!"
4 Cornelius stared at him in fear. "What is it, Lord?" he asked. The angel answered,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5 Now send men to Joppa to bring back a man named Simon who is called Peter.
6 He is staying with Simon the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
7 When the angel who spoke to him had gone, Cornelius called two of his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who was one of his attendants.
8 He told them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and sent them to Joppa.
9 About noon the following day as they were

on their journey and approaching the city, Peter went up on the roof to pray.

- 10 He became hungry and wanted something to eat, and while the meal was being prepared, he fell into a trance.
- 11 He saw heaven opened and something like a large sheet being let down to earth by its four corners.
- 12 It contained all kinds of four-footed animals, as well as reptiles of the earth and birds of the air.
- 13 Then a voice told him, "Get up, Peter. Kill and eat."
- 14 "Surely not, Lord!" Peter replied. "I have never eaten anything impure or unclean."
- 15 The voice spoke to him a second time,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 16 This happened three times, and immediately the sheet was taken back to heaven.

7월 30일 주일

Acts 10:17~33

- 17 While Peter was wondering about the meaning of the vision, the men sent by Cornelius found out where Simon's house was and stopped at the gate.
- 18 They called out, asking if Simon who was known as Peter was staying there.
- 19 While Peter was still thinking about the vision, the Spirit said to him, "Simon, three men are looking for you.
- 20 So get up and go downstairs. Do not hesitate to go with them, for I have sent them."
- 21 Peter went down and said to the men,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Why have you come?"
- 22 The men replied, "We have come from Cornelius the centurion. He is a righteous and God-fearing man, who is respected by all the Jewish people. A holy angel told him to have you come to his house so that he could hear what you have to say."
- 23 Then Peter invited the men into the house to be his guests. The next day Peter started out with them, and some of the brothers from Joppa went along.
- 24 The following day he arrived in Caesarea. Cornelius was expecting them and had

called together hi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 25 As Peter entered the house, Cornelius met him and fell at his feet in reverence.
- 26 But Peter made him get up. "Stand up," he said, "I am only a man myself."
- 27 Talking with him, Peter went inside and found a large gathering of people.
- 28 He said to them: "You are well aware that it is against our law for a Jew to associate with a Gentile or visit him. But God has shown me that I should not call any man impure or unclean.
- 29 So when I was sent for, I came without raising any objection. May I ask why you sent for me?"
- 30 Cornelius answered: "Four days ago I was in my house praying at this hour, at three in the afternoon. Suddenly a man in shining clothes stood before me
- 31 and said, 'Cornelius, God has heard your prayer and remembered your gifts to the poor.
- 32 Send to Joppa for Simon who is called Peter. He is a guest in the home of Simon the tanner, who lives by the sea.'
- 33 So I sent for you immediately, and it was good of you to come. Now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to listen to everything the Lord has commanded you to tell us."

7월 31일 월요일

Acts 10:34~48

- 34 Then Peter began to speak: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 35 but accepts men from every nation who fear him and do what is right.
- 36 You know the message God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tell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 37 You know what has happened throughout Judea, beginning in Galilee after the baptism that John preached--
- 38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and how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 39 "We are witnesses of everything he did in

-
- the country of the Jews and in Jerusalem.
They killed him by hanging him on a tree,
40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caused him to be seen.
41 He was not seen by all the people, but by
witnesses whom God had already chosen--
by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the dead.
42 He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he is the one whom God
appointe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43 All the prophets testify about him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through his name."
44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se words,
the Holy Spirit came on all who heard the
message.
45 The circumcised believers who had come
with Peter were astonished that the gift of
the Holy Spirit had been poured out even
on the Gentiles.
46 For they heard them speaking in tongues
and praising God. Then Peter said,
47 "Can anyone keep these people from being
baptized with water? They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have."
48 So he ordered that they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n they asked
Peter to stay with them for a few days.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의 만나 2017년 7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한규삼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최광훈 최표규 권혁근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